

Acid jazz

애시드 재즈는 1980년대 중반 자일스 피터슨(Gilles Peterson)을 비롯한 영국 런던의 디제이들이 클럽에서 유명하지 않은 재즈, 재즈 펑크(jazz funk) 곡을 튼 것이 발단으로 여겨진다. 이후 자일스 피터슨은 애시드 재즈 레코즈(Acid Jazz Records), 토크 라우드(Talkin' Loud) 등의 레이블을 설립해 새로운 뮤지션을 발굴하고 음반을 출시함으로써 애시드 재즈의 확산을 도모했다.

애시드 재즈는 1990년대 들어 브랜드 뉴 헤비즈(The Brand New Heavies), 인코그니토(Incognito), 자미로콰이(Jamiroquai) 같은 그룹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더욱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 애시드 재즈에 영향을 받은 시부야케이가 부상하면서 일본, 한국 등 아시아권에서도 마니아층을 형성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빅비트, 트립합 등 새로운 스타일의 전자음악과 힙합이 주류 대중음악 차트에서 크게 히트하면서 점차 쇠락했다.

비교적 긴 길이, 동일한 악절의 반복, 관악기와 타악기의 적극적인 활용 등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재즈, 디스코, 펑크(funk), 힙합 등 리듬이 부각되는 장르들이 결합된 양식이기에 춤추기에 적합한 경쾌한 리듬의 곡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몽환적인 분위기의 표현에 중점을 두는 느린 템포의 곡도 다수를 차지한다. 하위 장르로 뉴 재즈(nu jazz), 뉴 펑크(nu funk) 등이 있다. 다른 명칭으로 '클럽 재즈'라 부르기도 한다.



Acid jazz

Brand New Heavies



브랜드 뉴 헤비스 (Brand New Heavies)

얀 킨케이드(Jan Kincaid, 키보드, 드럼, 보컬),
 사이먼 바톨로뮤(Simon Bartholomew, 기타),
 앤디아 데이븐포트(N'Dea Davenport, 보컬)
 데뷔 1990년 1집 앨범 [The Brand New Heavies]
 경력 2013 멤버 '돈 조셉' 영입

브랜드 뉴 헤비스는 1985년, 런던의 서부 일링 지역의 학교 친구들이었던 드러머이자 키보디스트인 얀 킨케이드와 기타리스트 사이먼 바톨로뮤, 그리고 베이스와 키보드를 연주하는 앤드류 레비에 의해 결성되었다. 당시 클럽 신을 뜨겁게 달구던 '레어 그루브'에 열광하던 이들은 미국의 펑크 밴드인 미터스나 제임스 브라운의 사운드에 영향을 받아, '브라더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의 연주 그룹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제임스 브라운의 음반 라이너노트 중 '새로운 슈퍼 헤비 펑크의 전도사(Minister of New Super Heavy Funk)'라는 표현에서 영감을 얻어 그룹명을 '브랜드 뉴 헤비스'로 바꾼 이들의 사운드는 클럽 신에서 골수 추종자들을 거느릴 정도의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밴드는 리드 싱어 제이 엘라 루스를 영입하고 1990년, 인디 레이블 '애시드 재즈'를 통해 셸프 타이틀의 데뷔 앨범을 발표한다. 그리고 애시드 재즈의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었다.

평단의 극찬을 이끌어낸 데뷔작 이후 밴드는 그야말로 애시드 재즈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장르의 모든 특징적 요소들을 고루 조화시킨 높은 완성도의 사운드를 표출해냈다. 그들의 연주에 담긴 네오소울, 디스코, 재즈와 힙합, 레게, 그리고 일렉트로니카와 팝, 록 음악까지 아우르는 다채로운 요소들과 파워풀한 보컬은 뛰어난 밸런스를 통해 특유의 선율과 리듬으로 거듭났고, 지극히 정교한 에너지와 아름다움이 담긴 풍요로운 감성을 내보였다. 60년대의 거친 소울/펑키 곡들을 연주하던 이들은 기존 음악에 담긴 넘쳐나는 생동감에 수려한 테크닉을 기반으로 한 세련미를 더함으로써 가장 '현대적'인 사운드를 완성하게 된 것이다.

핵심 멤버 3인을 주축으로 활동을 펼쳐온 브랜드 뉴 헤비스는 여러 연주자들과 여성 싱어들을 영입하여 밴드의 사운드에 안정적 화려함을 더했다. 특히 미국 출신의 여성 싱어 앤디아 대븐포트(N'Dea Davenport)의 소울풀하고 펑키한 감각과 역량, 카리스마 가득한 무대 퍼포먼스는 브랜드 뉴 헤비스의 대중적 성공에 빠질 수 없는 요소로 자리한다. 영국 데뷔작의 미국 발매 버전에 처음 참여한 이후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던 90년대 초반의 여러 앨범들에서 그녀는 밴드 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녀가 [Brother Sister](1994)를 끝으로 밴드를 떠났을 때 많은 팬들이 느낀 아쉬움은 앤디아 대븐포트의 존재감을 말해준다. 2006년 [Get Used To It]을 통해 오랜만에 밴드에 합류한 그녀는 이후 7년 만에 발표된 앨범 [Forward]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2013년 4월에 공개된 브랜드 뉴 헤비스의 여덟 번째 정규 앨범은 오랜만의 기다림과 밴드의 이름에 가지게 되는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멋진 앨범이다. 전작에 비해 더욱 강렬해진 템포와 리듬을 특징으로 하는 이 앨범은 곡 전반에 걸쳐 적절히 녹아든 브라스 섹션의 펑키한 그루브 감과 더불어 어느 때보다 세련된 곡 구성과 편곡을 특징으로 한다. 디스코 지향의 이 풍요로운 사운드에서는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의 복고적인 느낌이 짙게 드리워져 있으며, 부드럽게 귓가에 와 닿는 감미로운 팝의 선율과 시종일관 감각을 자극하는 멋들어진 리듬은 자연스러운 흥분을 전해준다. 샤카 칸(Chaka Khan)을 연상시키는 앤디아 대븐포트는 'Sunlight'와 'Do You Remember', 'Addicted' 등 3곡에서 예의 깊고 풍성한 목소리를 들려주는데, 이 곡들은 앨범의 색채를 제대로 드러내주는 작품들이다. 그 외에 새로운 여성 보컬리스트 돈 조셉(Dawn Joseph)과 얀 킨케이드가 여러 곡에서 리드 보컬을 맡았다.

Dawn Joseph 탈퇴 후 N'Dea Davenport가 현재 보컬이자 가장 오래된 보컬이다.



Acid jazz Incognito



인코그니토 (Incognito)

장 폴 마우닉(Jean Paul Maunick), 토니 몸렐(Tony Momrelle, 보컬), 이매니(Imaani, 보컬), 메이사 릉(Maysa Leak, 보컬), 매트 쿠퍼(Matt Cooper, 키보드), 바네사 헤인즈(Vanessa Haynes, 보컬), 모 브랜드스(Mo Brandis, 보컬), 나탈리 윌리엄스(Natalie Williams, 보컬), 프란시스 힐턴(Francis Hylton, 베이스), 프란체스코 멘돌리아(Francesco Mendolia, 드럼), 주앙 카에타노(Joao Caetano, 퍼커션), 시드 가울드(Sid Gauld, 트럼펫), 제이미 앤더슨(Jamie Anderson, 플루트), 트레버 미레스(Trevor Mires, 트럼본)

데뷔 1981년 1집 앨범 [Jazz Funk]

1981년 데뷔작을 발표한 이래 30년 이상 최고의 애시드 재즈 밴드로 자리해온 인코그니토. 기타리스트이자 싱어, 프로듀서인 장 폴 '블루이' 마우닉(Jean-Paul 'Bluey' Maunick)을 중심으로 영국에서 결성된 이들은 70년대의 재즈와 펑크(funk) 사운드의 탁월한 퓨전을 바탕으로 더할 수 없이 경쾌하고 흥겨운 그루브와 감성적인 연주를 펼쳐 보였다. 재능 있는 R&B/댄스 가수 조슬린 브라운(Jocelyn Brown)이나 다채로운 활동을 펼쳐온 트럼펫 연주자 크리스 보티(Chris Botti), '펑크의 여왕(Queen of Funk)' 샤카 칸(Chaka Khan), 그리고 80년대 '모드(mod) 리바이벌'의 중심에 섰던 천재 싱어송라이터 폴 웰러(Paul Weller) 등 다채로운 뮤지션들과의 협연을 통해 리드미컬하고 댄서블한 사운드를 표출해온 인코그니토는 특유의 스타일은 물론 작곡 역량, 연주 테크닉에 이르는 모든 부분에서 최고로 인정을 받아왔다.

컨템포러리 R&B와 스무스 재즈에 기반 한 펑키하고 그루브한 리듬, 그리고 부드럽고 세련된 연주와 분위기는 인코그니토 사운드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브라스를 포함한 각 악기의 섬세한 배치와 복잡하지만 절로 몸을 들썩이게 하는 물 흐르듯 매끄럽고 수려한 연주, 역동적이며 때로 관능적인 보컬의 조합은 밴드의 주된 매력을 이루고 있다. 인코그니토는 그간 열다섯 장의 정규 스튜디오 앨범을 발표했고 그 중 대부분은 음악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12년 3월 발표된 앨범 [Surreal]을 통해 다시 한 번 퇴색하지 않은 블루이 마우닉과 밴드의 뛰어난 재능과 역량을 드러냈던 밴드는 2012년 12월, 21세기의 주된 음악적 성과를 정리한 컴필레이션 [The New Millennium Collection]을 선보였다.

인코그니토의 열 번째 스튜디오 앨범 [Adventures In Black Sunshine](2004)부터 [Eleven](2005), [Bees + Things + Flowers](2006), [Tales From The Beach](2008), [Transatlantic R.P.M.](2010), 최근작 [Surreal]에 이르는 정규 앨범들, 그리고 리믹스 앨범 [More Tales Remixed](2008) 등 7장의 앨범에서 선곡된 23곡의 멋진 작품들을 수록한 이 앨범은 그야말로 '인코그니토 사운드의 모든 것'을 담은 편집 앨범이라 할 수 있다. 모든 곡들을 관통하는 부드럽고 우아한 베이스 라인과 매력적인 드럼 비트는 자유분방하고 즐거운 에너지와 결합된 싱그러운 선율과 더불어 한없이 기분 좋은 감흥을 선사한다.

조슬린 브라운의 열정적인 보컬이 돋보였던 밴드 최고의 히트곡 'Always There'의 2006년 버전은 아름다운 어쿠스틱 기타 연주, 현악 오케스트레이션과 함께 그녀의 보다 감성적이고 섬세한 목소리로 재탄생된 작품이며, 흥겨운 삼바의 요소가 포함된 'Beyond The Clouds'나 기막힌 디스코 리믹스의 옷을 입은 'Love Joy Understanding', 이탈리아의 슈퍼스타 마리오 비온디(Mario Biondi)의 깊은 R&B/소울 보컬과 샤카 칸의 풍성한 목소리가 어우러지는 'Lowdown', 디지털로만 선보였던 'Miso'와 'Lowdown (Ski Oakenfold Remix)', 그리고 편안함을 안겨주는 감미로운 칠아웃의 향연 'Goodbye To Yesterday' 등에 이르는 다채로운 곡들은 인코그니토의 매력을 고스란히 표출하는 곡들이다.



Acid jazz Jamiroquai



자미로콰이 (Jamiroquai)

제이 케이(Jay Kay, 보컬), 제임스 러셀(James Russell, 색소폰), 짐 코리(Jim Corry, 색소폰), 말콤 스트라찬(Malcolm Strachan, 트럼펫), 데릭 맥켄지(Derrick McKenzie, 드럼), 솔라 아킹볼라(Sola Akingbola, 퍼커션), 롭 해리스(Rob Harris, 기타), 맷 존슨(Matt Johnson, 키보드), 폴 터너(Paul Turner, 베이스)

데뷔

1993년 1집 앨범 [Emergency On Planet Earth]

수상

1997년 제40회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 팝 그룹, 1997년 MTV 비디오 어워드 최우수 비디오상

경력

2010 멤버 '제임스 러셀, 짐 코리, 말콤 스트라찬' 영입

2005 멤버 '폴 터너' 영입, 2002 멤버 '맷 존슨' 영입

자미로콰이는 1990년대 초반, 런던에서 활발하게 일어난 애시드 재즈 무브먼트 속에서 활동했던 인코그니토, 브랜드 뉴 헤비스, 갈리아노, 코듀로이 등의 밴드 중 가장 눈에 띄는 밴드였다. 애시드 재즈 밴드이지만 자미로콰이는 후속 앨범을 계속 내놓으면서 애시드 재즈 외의 다른 음악적 장르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자미로콰이는 잼 세션의 잼 (Jam)과 아메리카 원주민 이로쿼이족의 이름에 약한 근거를 두고 유래한 이로콰이(iroquai)의 합성어이다. 자미로콰이 밴드의 구성원들은 여러 차례 바뀐 바 있다. 하지만 핵심 구성원이 있기는 한데, 핵심 구성원은 리드 싱어이자 밴드의 리더인 제이슨 케이 및 키보드 플레이어 토비 스미스이다. 자미로콰이의 결성에 있어서 제이슨 케이는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다. 제이슨 케이는 브랜드 뉴 헤비스의 싱어 오디션에서 탈락하고 나서 자미로콰이를 결성했던 것이다. 자미로콰이의 첫 번째 싱글, 〈When You Gonna Learn?〉은 1992년 애시드 재즈 레이블로 발매되었다. 이것이 성공한 이후, 제이슨 케이는 소니 BMG 뮤직 엔터테인먼트와 8장의 앨범을 내기로 계약하였다. 소니에서 발매한 첫 번째 앨범, 《Emergency on Planet Earth》는 1993년 발매되었다. 이어서, 1994년 《The Return of the Space Cowboy》 앨범이 발매되었다.

초창기 자미로콰이는, 영국과 서유럽에서 인기를 얻어가고 있었던 반면에, 미국과 다른 국가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었다. 자미로콰이의 국제적 인기몰이는 1996년도 세 번째 앨범 《Travelling Without Moving》부터 시작되었다. 〈Virtual Insanity〉와 〈Cosmic Girl〉이 대 히트를 쳤다. 〈Virtual Insanity〉의 성공은 뮤직 비디오의 혁신적 영상에 힘입은 바 크다. 이 비디오는 제이슨 케이의 중력을 벗어난 것 같은 움직임을 영상에 담고 있다. 1997년 MTV 뮤직 어워드에서 〈Virtual Insanity〉는 4부문의 상을 수상하였다. 최고의 영상 상, 최고의 특수 효과 상, 최고의 촬영 상, 최고의 혁신 상 등을 탔다.

애시드 재즈와 에스닉적인 영향은 초창기의 세 개 앨범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1999년 앨범 《싱크로나이즈드(Synkronized)》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펑크와 디스코에 관심을 두고 있던 제이 케이가 밴드의 성향을 다른 쪽으로 끌고 갔다. 5번째 앨범 《어 펑크 오디세이(A Funk Odyssey)》(2001)에서는 격하게 변화였다. 일부의 평론가들과 음악 감상자들은 "자미로콰이의 사운드"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느꼈다. 디저리두를 연주했던 왈리스 부캐넌 같은 초창기 멤버의 이탈이 점점 많아지는 가운데, 이 때의 자미로콰이는 1992의 자미로콰이와는 아주 다른 밴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째 앨범의 첫 번째 싱글 〈리틀 엘(Little L)〉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곳에서 차트 1위를 차지했다.

6번째 앨범 《Dynamite》는 2005년 6월 20일 발매되었다. 영국 앨범 차트에서 3위를 기록하였다.

2006년 11월 자미로콰이는 그레이티스트 히트 모음집도 내놓았다. 앨범 제목은 《하이 타임스: 싱글즈 1992-2006》이다. 이 앨범은 소니 뮤직과의 8장 앨범 발매 계약 중 마지막 앨범이었다. 발매 몇 주 후, 이 앨범은 영국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하였다. 이 앨범에는 신곡도 들어 있다. 〈Runaway〉, 〈Radio〉가 신곡이다. 9월 18일 〈Runaway〉는 영국 라디오 방송에서 첫 전파를 탔으며, 10월 30일 싱글로 발매되었다.

2006년 3월, 자미로콰이는 음반사를 콜롬비아 레코드로 옮겼다. 향후 음반은 콜롬비아 레코드 하에서 발매될 예정이다.

